

연구원 업무용 (02)368-9517  
 tteam@bookook.co.kr

적극적인 대응보단 종목 중심의 접근

< Market Summary >

**KOSPI :** 2일 KOSPI지수는 1%이상 약세를 보이며 5거래일 연속 하락하였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1,420억원)에도 불구하고 美 증시의 급락(10/30 DOW: -2.51%, S&P500: -2.81%; 구매자관리지수(PMI)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표 약화와 CIT 파산 우려 등으로 급락), 아시아주요지수의 혼조(11/2 일본니케이: -2.31%, 대만타이완 -0.07%, 중국상해: +2.70% 등),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개인: -553억원, 기관: -1,034억원), 시총상위종목들의 동반약세(삼성전자: -0.69%, POSCO: -1.19%, 현대차: -6.84% 등)등 시장내 하락요인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일 KOSPI 지수는 직전거래일 증가대비 21.60p(-1.36%)내린 1,559.09p로 마감되었다. 업종별로는 통신을 제외한 전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 중 운수장비, 은행, 운수창고 등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그림2]참조

5거래일 연속 약세

美 증시 급락

운수장비, 은행, 운수창고 등의 내림세가 두드러짐.

**KOSDAQ :** 2일 KOSDAQ지수 역시 장중 내내 부진함을 면치 못하면서 다시 약세로 전환되었다. [그림1]참조 이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기관: +61억원, 외국인: +93억원)에도 불구하고 전일 美 NASDAQ지수의 급락(10/30: -2.50%),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147억원), 시총상위종목의 약세(서울반도체: -4.40%, 메가스터디: -0.27%, 셀트리온: -2.60% 등)등 시장내 약세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날 KOSDAQ지수는 직전거래일 대비 7.21p(-1.48%)하락한 479.25p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섬유이류, 방송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일반전기, 컴퓨터서비스, 음식료, 건설 등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약세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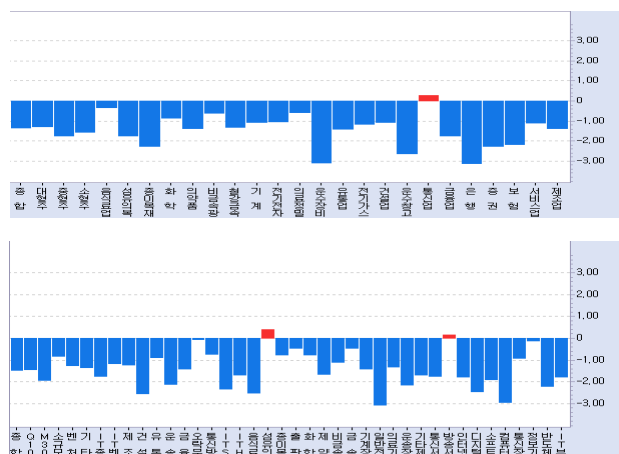
일반전기, 컴퓨터서비스, 음식료, 건설 등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그림1] 2일 KOSPI(上) 및 KOSDAQ(下) 일종흐름(분타기준)



자료 : 부국증권

[그림2] 2일 KOSPI(上) 및 KOSDAQ(下) 업종별 등락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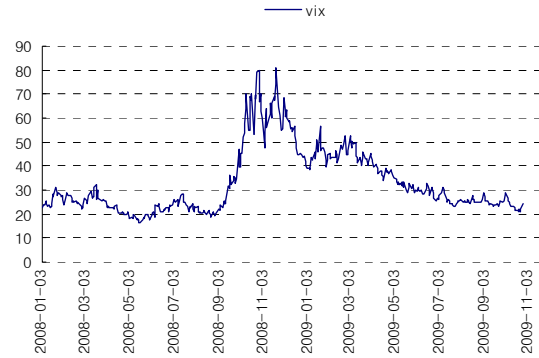
자료 : 부국증권

[그림3] KOSPI 60일 이평선 붕괴



자료 : 부국증권

[그림4] VIX index 추이



자료 : BLOOMBERG, 부국증권

< Issue comment >

모멘텀 부족에 따른 조정 지속

여전히 지수는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투자심리의 개선이 나타나지 못하며 조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일 국내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약세와 함께 그동안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60일선 아래로 급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4분기 이후 국내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우려가 시장내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상에 있어서도 이전같이 강도 높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국내 주식형 수익잔고의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른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계속되며 불안한 수급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추중해졌지만, 당분간은 달러화의 약세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의 추가하락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의 향후 실적 악화 전망과 함께 국내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역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는 시점이다. 따라서 실적모멘텀 둔화, 원/달러 환율 강세, 외국인 순매수 강도약화 등 현시점은 국내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강도높은 국내증시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증시의 흐름을 볼 때 큰 폭의 추가 조정 가능성 역시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 Strategic comment >

3분기 실적개선 종목위주의 접근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3분기 기업들의 실적모멘텀이 2분기 때와 같이 국내증시의 강한 반등을 이끌만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그 동안 강한 반등을 지속해온 주요국증시 역시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 증가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금주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발표 및 국내외 주요경제지표의 호전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국 증시대비 선조정에 따른 양호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볼 때, 국내증시의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인 투자심리의 개선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당분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3분기 실적개선 종목위주의 접근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